

한국형 자유학예대학(Neo-LAC)을 위한 교육기호학의 제언

박일우* · 배은숙** · 안호영*** · 이현민**** · 조혜경*****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교육기호학의 태동과 사명
- III. 교양기초교육과 교육기호학의 기여
- IV.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의 혁신
- V. 맺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양기초교육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을 교육기호학(Edusemiotic)의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대두되는 교육기호학은 기호학 특유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교육사상과 철학이 견지해 온 관점과 영역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혁신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교육기호학의 태동 과정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교육철학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이 상호 부합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시대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교육기호학이 이루어 낸 기존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국내 교양기초교육의 문제를 교육 이념, 교육과정,

* 두기저자,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ilwoo@kmu.ac.kr

** 계명대

*** 동국대 경주

**** 경희대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apriori30@daegu.ac.kr

교육편제 별로 살펴 핵심 문제를 도출한 후 이를 교육기호학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교육기호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고등교육제도로 신인문학(Neo-Humanities) 중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한국형 자유학예대학(Neo-Liberal Arts College)의 건학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하고자 한다.

열쇠어 : 교육기호학, 교양교육, 교육사상의 인식론적 전회, 4차 산업혁명, 고등교육, 자유학예대학, 휴타고지

I. 들어가는 말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는 비정상적인 교육 열기에서 비롯한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르는 질적 수준 저하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기인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철학의 빈곤에서도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글로벌 무대 전역에서 감지되지만¹⁾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상황은 심각하다. 전공분야와 일자리의 불일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위기, 구조조정 혹은 존폐의 위기를 앞두고도 개인·학과·대학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교수·학습자의 개인·집단이기주의, 신자유주의에 따른 교육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들은 이미 진부할 정도이다. 국내 고등교육의 총체적 난맥상은 표면적 현상에만 접근하는 대중 처방으로는 해결은커녕 진단할 수도 없다. 이 글은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적 틀로 기호학적 시선, 즉 ‘교육기호학(edusemiotics)’을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론은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기에는 다소 진부할 정도가 되었으나,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천사에는 국내의 교육환경을

1) 최근 서구의 지성계에서 진행되는 고등교육의 담론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이 제목에서부터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Beyond the university*(2015), *Crisis in higher education*(2015), *Education's End*(2007), *The innovative university*(2011), *Remaking college*(2014) 등이 그러하다.

모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한 원로의 통찰이 담겨 있다:²⁾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와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기존의 교육 제도와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길러 낼 수 있겠는가(사공일).

이 글은 이러한 우려와 희망에 답하는 성격을 가진다. 20세기 말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식사회의 지형변화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은 물론, 곧 다가 올 N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교육은 부단히 진행될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세대를 차기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워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전면적 개혁은 현재의 상황을 성찰하고 대학의 기구편제, 교수학습법,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교육기호학의 시선에서 만들어 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철학을 모색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II. 교육기호학의 태동과 사명

1. 교육기호학의 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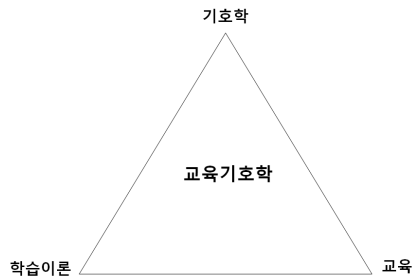
2010년을 기점으로 서구의 지성계에서는 기존 교육철학의 맥락을 넘어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기호학자 다네시(Marcel Danesi)는 『기호학적 교육 경험』의 서문에서 최초로 ‘교육기호학(Edusemiotics)’의 도

2) K. 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9쪽.

래를 선언하면서, 인간은 기호사용 체계(semiosphere) 가운데에서 태어나 기호를 해석하고 기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경험적 탐구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주장하였다.³⁾

최근까지도 기호와 학습이론, 교육을 통합하여 새로운 분야, 즉 ‘교육기호학’이라 부를 수 있는 생각은 정제되지 않았다. 위대한 러시아 심리학자인 비고츠키가 인간은 기호의 도움으로 주체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말이다.

교육기호학은 학습이론과 교육의 상호 의존에서 존재 근거를 찾는다. 기호학은 기호의 과학이고 학습이론은 기호를 어떻게 학습하는가의 과학이며, 교육은 기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는 실천 기술 혹은 과학이므로 이들의 결합은 교육기호학을 낳는 것이다. 이를 기호학자들에게 익숙한 삼원구조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육기호학의 위상

2010년 이후 전개된 교육기호학의 국제적 움직임은 새 밀레니움 이후 전반적으로 침체된 듯 보이던 기호학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사례로 2013년 핀란드 이마트라에서 열리는 <기호학·구

3) M. Danesi, “Foreword: education”, in *Semiotics education experience*, I. Semetsky ed. Sense Publisher, 2010, p.vii.

조주의 연구 국제 하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Semiotic and Structural Studies)>에서 ‘교육기호학’이 주요 세션으로 상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당시 세션을 주도한 일군의 학자들, 즉 시메츠키(Inna Semetsky), 스테이블즈(Andrew Stables), 올토누(Alin Olteanu)의 활동상과 발표주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⁴⁾ 이들은 2014년 소피아에서 열린 제 12회 국제기호학회에서 교육기호학을 이론기호학의 한 정규 영역으로 수립하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더니, 급기야 기호학 연구 성과의 주기적 집대성이라 할 『기호학 국제 핸드북』 최근 판의 마지막 파트(Part VIII <Education and Semiotics>)를 차지하면서⁵⁾ 바야흐로 기호학 연구사에서도 가장 최근의 하위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교육기호학이 단시일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태동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인류가 가진 오래된 학문 중의 하나인 교육학의 전통과 역사학을 승계한 덕분이겠지만, 교육기호학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오랜 이론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장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게 된 현대의 교육, 특히 제4차 산업혁명담론의 전 후 맥락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어 온 교육혁신의 분위기에서 기존의 교육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교육기호학의 사명

교육기호학의 위상은 단순한데 비해, 교육기호학의 영역과 임무는 정교하다. 교육기호학이 기존의 교육학이 관심을 가져 온 모든 하위 영역, 즉 교육철학, 교육과정, 평가, 교육제도 등 교육학의 전반에 대응되는 이론체계를 이 시점에서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과학의 패트론”으로 자부하는 기호학 특유의 초학제적 성격은 모든 교육적 실천의 바탕이 되는

4) 박일우, 「기호학의 새로운 사명 - 교양교육에서 기호학의 역할」, 『기호학연구』 43, 2015, 55쪽.

5) Trifonas, P.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semiotics* Vol. 2, Springer, 2016, pp.1155~1308.

교육철학에도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기호학의 구체적 사명을 규정해 준다.

교육기호학은 전통적 교육학이 추구해 온 “이해를 하는 가 못 하는 가”의 문제를 벗어나 “‘되어 감’과 ‘되어 감을 배우는(becoming and learning to become)’ 기호학적 탐구”를 다룬다. 교육기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지식 영역은 ‘brute fact’, 즉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모든 현상과 대상의 해석(interpretation)을 포함한다. 해석의 문제는 다양한 학문 영역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호학(Semiotics)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⁶⁾

21세기의 교육 정책 아젠다는 현재를 “비판적 태도 혹은 에토스”로 관찰하여 미래의 “에듀토피아(edutipoia)”를 설계하는 것이다. 에듀토피아는 오늘날 지식경제학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이론과 실천의 협동 작업으로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호학은 기호학 특유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다른 교육사상과 철학이 견지해 온 영역들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전히 오늘날의 교육을 지배하는 데카르트 식의 이분법과 지식의 파편화에 맞서서 교육기호학은 초학제적 이론을 개발하고 윤리적 교육에 강조점을 두는 패러다임을 채택하면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행동을 구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일반기호학의 하위 영역으로 막 편입된 교육기호학은 의미와 가치의 실존적 영역을 대상으로 의미작용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일반기호학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비록 교육기호학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은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가늠하기에는 이르며, 복잡하게 엮인 모든 교육 문제에 대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교육기호학의 텍스트 가운데에서 교육기호학은 “기억작용(학습)은 기호를

6) A. Stables · I. Semetsky, *Edusemiotics: semiotic philosophy as educational foundation*, Routledge, 2015, p.1.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비고츠키(L. S. Vygotsky)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는 내용, 학습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sine qua non) 본질적 양상이라는 더 오래된 5세기 철학자 보에티우스(Boëthius)의 가르침을 환기하는 부분을 만나면서 (Olteanu, 2015: 22- 38), 우리는 이와 같은 정도의 깊이와 태생적 맥락을 가지는 교육기호학의 관점이라면 오늘날의 교양기초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돌출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기회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게 되었다.

III. 교양교육과 교육기호학의 기여

교양교육은 교육의 유용성보다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은 교육사는 ‘교양교육사’이었다. 교양교육의 이념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Paideia)에서 시작하여 로마 이후 중세, 르네상스의 후마니타스(Humanitas), 훔볼트를 필두로 한 신인문주의의 도야(Bildung)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근대 이후 영국, 미국에서 확립된 교양교육의 이념은 이러한 전통 위에서 수립되었다. 영국의 뉴먼(J. Henry Newman), 밀(J. S. Mill), 헉슬리(T. Huxley) 등은 영국의 산업화에 따르는 인문학의 위기를 이성적, 교양인, 사회적 공민, 과학적 실용인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체계화로 극복하였으며, 미국의 듀이(J. Dewey)는 개인과 사회의 민주적 숙성을 교육의 사명으로 보고 지식의 도구성을 중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성과 경험, 사고와 행위, 지식과 실천의 통합을 설파하였다.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양교육은 시카고 대학 총장을 역임한 허친스(R. M. Hutchins)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엘리엇(C. W. Elliot)의 선도적 노력으로 체계화되었다. 허친스는 <위대한 대화(The Great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고전을 통한 비판적 사고 진작을 핵심교육과정으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하였고, 엘리엇과 그의 후배들은 <자

유로운 사회에서의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일명 <일차 하버드 보고서>와 뒤를 이은 지난한 논쟁을 통해 기초학문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즉 ‘중핵교육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 앞서가는 미국 특유의 고등교육의 뿌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실천은 2006년 한국 교양교육학회, 2011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의 발족과 함께 공식화되었다. 특히 교기원은 그동안 일선에서 잠재해 왔던 교양교육 혁신 움직임을 수렴하여 짧은 시간에 교양교육의 지평 확산을 위한 이념적, 제도적 노력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2016년 <대학기초교양교육의 표준 모델>을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여기에서 ‘교양기초교육’이란 다음과 같이 전통적 의미의 교양교육과 함께 “기초학문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⁷⁾

기존 교육철학은 사회과학과 철학의 틈바구니에 스스로를 가두어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야망과 성취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교육기호학은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은 물론 창조적 해석과 의미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서의 예술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교육이론의 배경, 과장하자면 교육철학의 ‘인식론적 전회(epistemological turn)’를 제공한다. 교육철학 연구의 세부 주제 가운데에서 교육기호학의

7)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 http://konige.kr/sub02_08.php, 2017년 3월 2일 열람.

관점이 더 나은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기호학적 추론: 교육기호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부터 기인한 전통적 추론 모델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과 통합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기호작용(semiosis)과 학습의 관계: 모든 삶의 행위가 기호작용이고 학습 역시 기호작용이라면 학습을 학습이 아닌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에 관한 대안적 해법을 제기한다.
-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철학과 도구적 관점 비판: 퍼스 기호학에서 암시적으로 보이는 교육학적 시사와 듀이의 실용주의의 사이의 합치점과 괴리를 분석한다.
- 평생교육과 통합의 윤리: 교육기호학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일종의 언어 외적(extralinguistic) 텍스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교육 가치는 외견상 부차적으로 보이는 것에 휴면상태로 깃들여 있다.
- 교육과 사회 : 초기 시민사회에서 교육은 시민사회에 관한 자족적 이해와 담론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세계화된 사회에서 교육은 개별 집단, 사회, 국가 차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을 벗어나 긍정적인 사회적 약호(code)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와 같이 교육기호학은 기호학의 하위 분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면서 개별 문제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 학습(Danesi, 2000), 지식 획득(Semetsky 20005), 윤리교육(Semetsky 2009), 글쓰기와 수사학(Strand, 2013) 등이 그러한 성과이다. 우리는 교육기호학의 기본적 가정, 즉 “되어 감과 ‘되어 감을 배우는(becoming and learning to become)’ 철학적 배경이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이슈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되어야 할 교육혁신의 이념적 배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교육에서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의 혁신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역

으로 교육기호학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IV.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의 혁신

1. 고등교육을 향한 4차 산업혁명의 요구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을 통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⁸⁾이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 신소재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양자 컴퓨터 등의 과학기술의 약진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며 데이터를 생산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테크놀로지가 생산, 가치 사슬(value chain), 소비 행태 등의 경제생태계를 재편하면서 시작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 변화(disruptive change)를 요구하고 있으며⁹⁾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으로 귀결된다. 교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불확실한 고용시장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차원의 인식에서 나아가, 교육이란 기존 지식의 보급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위한 창의성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전회(epistemological turn)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절박하게는 인간 그 자체를 존속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수립과 실천을 요구한다.

8) K. 슈밥, 앞의 책, 29쪽.

9) World Economic Forum, “Mastering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nual Meeting Report*, WORLD ECONOMIC FORUM Publishing, 2016, p.3, Retrieved April 5, 2017 from www.weforum.org.

2. 새로운 고등교육 이념과 목표

한 국가의 정책, 특히 교육정책은 당대의 단기적 상황이나 시류와는 무관하게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구조개혁은 단지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수동적인 대응 방안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정책을 통해 근본적이며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인문학 위기 담론은 실은 ‘인문학자’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의 위기를 반영하였을 뿐이며, 정부재정 지원 사업에 기댄 대학의 인문학 진흥 노력은 결국 ‘역량 계발’이라는 명목으로 인문학의 실용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이념을 반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계 특유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여러 문제,¹⁰⁾ 예를 들어 집단이기주의로 점철된 학과-전공 중심 대학 편제의 폐쇄성, 혁신에 대한 교수들의 냉소적 자세와 기득권 수호 작태,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매칭, 이른바 “N포 세대”로 표현되는 청년 실업 문제, 나아가 대학의 기업화와 양극화, 기초학문의 고사, 그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단절, 특히 현안으로 부각되는 부실 교육기관 처리 등은 기존의 대중적 치유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새로운 융복합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를 ‘신인문학(Neo-Humanities)’이라 부르고자 한다. 신인문학은 새로운 인문학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humanities)의 재발견과 재규정을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은 ‘인문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학, 사학, 철학과 같은 좁은

10)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와 인재 역량 수준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방법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괴리감은 더욱 심각하다.

범주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은 모든 제도적 인문학의 근저에 깔려 있는 인간됨, 혹은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추구하였던 ‘더욱 인간적인(*humanior*) 존재’를 만들어내는 정신을 구현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인문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의 전통이다. 4차 산업혁명은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주도하고 있다. 인간의 자리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지식과 기억이 있던 자리에는 빅데이터가 들어왔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이자 위기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근대화를 거쳐 산업시대에서 인간 소외가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은 아예 인간 존재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기능과 역할이 대체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문제에 대해 의심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는 결국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거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문학이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다시 태어난 인문학이 신인문학이다.

3. 새로운 교육편제와 교육과정

교육기호학의 입장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고등교육 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학예대학(Liberal Arts College)¹¹⁾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학예과학대학(Liberal Arts & Science College)을 원형으로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고급 연구직/전문직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중심 자유학예대학[학부완결형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11) 미국식 리버럴아츠 칼리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등록학생 3,000명 미만의 미국식 리버럴아츠 칼리지 모델이 한국 실정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강의, 정주대학(Residential College), 다양한 비교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자유학예대학의 위상을 규정 한다.¹²⁾ 자유학예대학은 이름 그대로 자유 학예, 즉 전통적인 3학(문법, 논리학, 수학)과 4과(대수학, 기하학, 음악학, 천문학)에서 근대 이후 기초학문으로 정립된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두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면서 전문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인문교양교육과 자유학예대학의 오랜 전통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이 가치가 부여되는 필연성에 주목하면서, 앞에서 기술한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으로 ‘네오 리버털아츠 칼리지(Neo-Liberal Arts College : 이하 Neo-LAC)’라 명명하는 편제를 구상한다. Neo-LAC은 기존 국내 LAC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¹³⁾ 기존 대학을 개·보수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건학’을 전제로 한다. [표 1]은 Neo-LAC의 개요로서, 1, 2, 3은 교육과정 및 학점 이수체계를, 4, 5, 6, 7은 대학 운영 방법을 보여준다.

[표 1] Neo-LAC 교육과정 및 운영(숫자는 학점 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기초학문 위주 최저이수 교과목: (필수 12 + 전공선택 18=30)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 후, 다른 두 영역에서 반드시 두 과목 씩 이수(학문적 글쓰기 병행)	1학년
	도구 과목(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 • 외국어 • 수리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과목 	
2	기초학문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 BDP course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 Concept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36) • 선택 이수(30) • 관련 BDP Lab 참여, 프로젝트 수행(6) 	2-4 학년

1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 http://konige.kr/sub02_08.php, 2017년 3월 2일 열람.

13)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 참여 혹은 신청을 계기로 ‘학부대학’, 영어로 ‘Liberal Arts College’을 표방하면서 교양기초교육 강화 목표를 이루고자 하나, 이는 기존의 대학편제와 타협한 어정쩡한 교육과정과 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비교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연관 자기설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정주대학(RC) 프로그램 참여 국내외 지역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 참여 	전 학년
4	학생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문·이과 통합교과목과 연계 	향후 대학은 문·이과 구별이 없어진 고등학생들이 진학함
5	교수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융복합 교과목 개발·운영 경험자 	현재 기초학문후속세대는 거의 단절된 바, 이를 통해 기초학문의 르네상스를 촉진함
6	대학 설립체제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우선 광역별 1개교 우선 개교 한계상황에 봉착한 사립대 전용 허락 	
7	대학설립 및 운영 법(령) 재개정		

4. 차별화된 교육과정: BDP

미래사회의 인류의 생존 여부는 거대 개념(Big concept)과 심층적 사고(Deep thinking)에 대한 융복합적인 시각과 심층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명제적 지식 습득의 한계를 넘어서 직접적이고 능동적 활동을 하는 학습을 요구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지식을 지혜의 수준으로 내면화하여야 한다. ‘거대개념’이란 인간의 삶과 세계에서 단일 분야, 단일 분과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교육 주제 혹은 아이템, 예를 들어 환경, 차별, 분쟁 등, 빅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현황 분석, 비판적 사고와 융복합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심층적 사고’란,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발명은 기발하고 획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불연속적 사고, 역동적이고 창의적 사고, 논리를 벗어

나거나 초월한 사고를 말한다. 심층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기계적 사고는 논리적이며 이분법적이며 명쾌한 개념을 가지지만 인간의 본원적인 사고는 때로는 모순되기도 하고 논리를 뛰어넘기도 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변덕스러우므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사고야말로 현대 사회의 예기치 못한 문제, 그리고 기계와 기술이 대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eo-LAC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인문학의 모든 영역을 가로지르는 융합 교육과정으로 가칭 BDP Course(Big Concept, Deep Thinking Problem Solving Course)을 대표적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자 한다. 특히 BDP Course는 전 지구적 문제 발견, 탐색과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 인간과 삶 그리고 세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시간, 공간, 물질, 생명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인문학적 성찰을 목표로 한다. BDP Course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기초학문 이수 후 기초학문 중심의 융복합 교육-연구 연계 과정
- 교수자간, 교수-학습자 간 자율적이고 실험적인 교육과정 설계의 일환으로 ‘휴타고지’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BDP Lab) 제공
- N차 혁명을 대비하는 학습자 중심 융복합 연구-교육 실현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 현행 LAC의 교수자 중심 융복합 교육과정, 일부 학문들 간의 제한된 융복합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

BDP Course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BDP Course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삶, 세계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 및 과학적 이해와 설명 • 인간과 삶, 세계의 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학생·교수 공동 모색 • 인문 교양 교육과정의 수준별 구성, 단계적 접근을 통한 기초 학문의 전반적인 질제고 • 과학적 이해와 설명 및 인문학적 탐색과 성찰의 상호소통 강화 • 인문학 연구·강의 연계 소규모 강좌, 세미나, 인문 랩(Lab)의 활성화 • 고교 문·이과 통합 연계 • 융복합 문해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핵 교과I : Big concepts • 인간, 역사,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 문학, 역사, 철학, 자연과학의 통합 커리큘럼으로서 전교생 대상 • 중핵 교과II: Deep thinking & Problem Solving • 인간, 역사, 세계에 대한 문제 제기과 이에 대한 인문 융합적 해결 방안 공동 모색. 인간과 삶,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인문적으로 성찰하고, 인문적 탐색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 중핵 교과 I과 연관된 심층 강좌 및 소규모 세미나 지향, 따라서 교수자, 학생, 인문 멘토(대학원생, 시간강사)의 Co-Work 지향 • 관련 인프라로 인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BDP Lab’ 신설, 관련 연구와 강의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자, 학생, 멘토와의 코워킹을 통한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유기성 확보 • 인문학 관련 학문후속세대 양성 • 수준별 인문 교양 강좌 운영을 통한 인문학에 대한 체계적 접근성 확보 • 인문학 관련 소규모 인문 랩의 활성화 • 과학적 설명과 인문학적 성찰의 소통 활성화 • 융복합 문해력을 바탕으로 삶 속의 과학 수용성 강화

5. 새로운 교수학습법 : 휴타고지

Neo-LAC은 교수학습법에서도 혁신을 추구한다. 이는 먼저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라 불리며, 즉흥적이고 동시다발적 감각을 키워온 학생들로서, 변화, 신속함, 방대함 속의 핵심적 지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식을 찾아 해석하는 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필요한 세대이다. 새로운 세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으로서의 지식 독점 시대에서 학습자원을 공유하는 시대로 변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 Web 2.0으로 시작된 공개·공유 패러다임은 학습자원을 공유하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단계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이후 개별 대학 주도로 시작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특히 2015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KMOOC’는 강의식 교수법의 한계, 전공에 국한된 교수자,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 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들로 일부 사용 가능하다. 세 번째로, 대학 진학률이 80%에 근접하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5년 82.1%로 가장 높고, 2016년에는 69.8%로 나타난다.¹⁴⁾ 대학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위주의 인문학 대중화 정책보다는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개발·진행 중이나¹⁵⁾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폭넓은 직업 준비와 설

14)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2017. 3.

15) 액티브러닝이란 이름 그대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학습법을 말한다. 액티브러닝의 유형에는 사례중심학습법(Case-Based Learning),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문제중심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목표중심학습법(Goal-Based Learning), 팀중심학습법(Team-Based Learning), 프로젝트중심학습법(Project-Based Learning) 등이 있다.

계가 필요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휴타고지(heutagogy)’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기결정학습법(self-determined learning)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learning to learn)’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교육생태계에 부합된다. 휴타고지란 자기 결정적 학습의 한 형태로,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역량(competencies)과 능력(capabilities) 둘 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서 증명된 능력을 의미하며 능력은 자신의 역량을 확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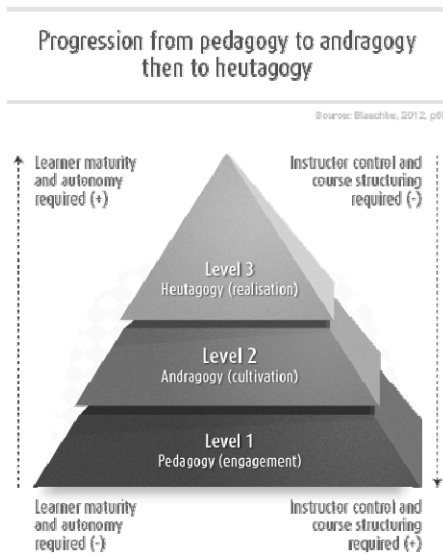
- 자아 효능감, 즉 학습방법을 알고 학습과정 동안 부단한 자아 성찰을 한다.
- 소통과 팀워크 스킬을 갖추고 남들과 잘 협업한다.
- 창의성, 특히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한다.
- 긍정적 가치 기준을 가진다.

교수학습법으로서의 휴타고지는 [그림 2]¹⁷⁾에서 보듯 전통적 교수학습법인 ‘페다고지(pedagogy)’와 ‘안드라고지(andragogy)’를 넘어선 수준에 위치한다. 교육이념으로서 휴타고지가 지향하는 목표는 4차 산업혁명과 이후의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IT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결정학습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은유화

16) L. M. Blaschke, “Heutagogy and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heutagogical practice and self-determined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1, 2012, pp.56~71, Retrieved April 5, 2017 from <http://www.irrodl.org/index.php/irrodl/article/view/1076/2113>

17) 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rning,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Retrieved April 5, 2017 from: <https://www.nationalcollege.org.uk/transfer/open/advanced-facilitation/advfac-s03/advfac-s03-t3.html>.

(metaphorisation)를 통해 과학기술 지식을 수용성하여 지식의 자기조직화가 증대된다. 휴타고지는 학습자의 참여가 필요충분조건이므로 학습자가 자기결정 학습에서 안과 밖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타고지는 나선적 상승운동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밖으로는 지식의 융합: 과학기술과 인문학 등의 융복합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안으로는 지식의 내면화, 즉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이 학습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다. 나선적 상승운동은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은유적 사고와 연결적 사고로 융합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지식은 내면화되면서 스스로에게 휴식(aposiopesis)을 줄 수 있다.



[그림 2] 휴타고지의 위상

V. 맺는 말

이 글은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가 일부 교육철학의 빈곤에서도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적 틀인 교육기호학적 시선으로 교육기호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교육기호학의 역사가 일천하며 아직은 그 대상범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교육정책의 제안 역시 교육기호학의 한 영역이 되며 연구의 전범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으로 신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Neo-LAC 건학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실타래처럼 엉킨 국내 고등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실체는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대학 편제와 전공·학과 편의위주라는 역방향으로 편성된 기존 학문체계라는 대학사회에서 통용되는 금기를 깨고, 고등교육을 원래의 전통적 맥락인 자유교양교육에 되돌려 놓고자 하였다. 특히 BDP를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융복합 프로그램의 전범을 제공하고, 교육이념·교수학습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휴타고지’의 도입으로 인한 교수자·학습자의 역할, 대학문화, 나아가 대학 거버넌스의 혁신적 재규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기초학문 기반 융합 교육과정 전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탈 제성 실현 방안과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방안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N포 시대’의 세대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향후 미지의 생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이다.

이 글은 실은 매우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 글이 제안하는 Neo-LAC은 전통적 기초학문을 통합학문으로 재규정하는 교육과정과 편제를 가지므로, 막대한 예산을 밑 빠진 항아리에 쏟아 붓는 그 어떤 인문학 진흥 정책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초학문 후속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1980년대 이후 대학의 양적 팽창에서 비롯된 교수인력은 2020년 이내에 퇴임하게 되며, 그동안 대학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교수임용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특히 기초학문 분야는 학생은 물론 교수자 역시 자원고갈의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해 온 잠재적 학문 후속세대들이 기초학문을 기피하는 현상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교육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문의 와해는 시간문제이다. 나아가 이 글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추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eo-LAC은 의도와는 달리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과 타율적 규제로 점철된 왜곡된 대학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의도는 좋았으나 이 역시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계량적 잣대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에 급급해 왜곡된 결과로 드러나는 일이 허다하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특정 정권의 교육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수동화, 양극화는 물론, 대학 경영진의 자구 노력 부실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그 결과, 교육 환경 변화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이른 바 부실대학 처리는 교육당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Neo-LAC 설립 제안은 대학 경영자의 의지와 정책 당국의 유도만 있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실대학’이 ‘국내 굴지의 대학’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부여한다.

참고문헌

- 김성우 · 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 2009, 11~40쪽.
- 김지현 · 신의향, 『대학의 학부교육』, 교육과학사, 2017.
- 박일우, 「기호학의 새로운 사명 - 교양교육에서 기호학의 역할」, 『기호학연구』 43, 2015, 40~66쪽.
- _____,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의 실상과 그 해법」, 『교양교육연구』 10-1, 2016, 349~378쪽.
- 손동현, 「Liberal Arts 교육, 한국 대학교육의 새 지평?」,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576~594쪽.
- 손승남,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교육과학사, 2011.
- 슈밥, K. 지음,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 이영호 외, 『대학 인문교양교육의 현황진단 및 정책대안』, 인문사회연구회, 2003.
- 정철민 외,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 하버드 교양교육 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6/3, 2016, 189~210쪽.
- 정희모, 「대학 이념의 변화와 인문학의 미래」, 『철학탐구』 34, 2014, 169~193쪽.
- 한동승,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42, 2016, 9~24쪽.
- 홍병선 외, 『인문학 교육실태 분석 및 진흥 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2011.
- Abelson, P., *The seven liberal arts : a study in mediæval culture*,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010.
- Bennett, W.J. et al., *Is College Worth It?: A Former United States Secretary of Education and a Liberal Arts Graduate Expose the Broken Promise of Higher Education*, Thomas Nelson, 2013.
- Chopp, R., F. Susan and D. Weiss eds., *Remaking College : Innovation and the Liberal Art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 Chritensen, C. and H. Eyring, *The Innovative University : Changing the DNA of Higher Education from the Inside Out*, A Wiley Imprint, 2011.
- Danesi, M., *Semiotics in Language Education*. M. de Gruyter, 2000.
- Docking, J. and C. Curton, *Crisis in Higher Education - A Plan to Save Small Liberal Arts Colleges in America*,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5.
- Olteanu, A.,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Semiotics of Charles Peirce : A Cosmology of Learning and Loving*, Peter Lang, 2015.

- Robin, B and P. White eds., *Beyond Liberal Education : Essays in Honour of Paul H. Hirst*. London: Routledge, 1993.
-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16.
- Semetsky, I. and A. Stables eds., *Pedagogy and Edusemiotics : Theoretical Challenges / Practical Opportunities*, Sense Publishers, 2014.
- Semetsky, I., “Peirce and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7/2, 2005, pp.153 ~ 156.
- Semetsky, I., *Semiotics, Education, Experience*, Sense Publisher, 2009.
- Stables A. and I. Semetsky, *Edusemiotics : Semiotic Philosophy as Educational Foundation*, Routledge, 2015.
- Trifonas P.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Semiotics*, Vol. 1. 2., Springer, 2015.
- William B., *Deep thinking: What mathematics can teach us about the mind*, Concordia UP, 2015.
- Zakaria, F.,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astella Rylestone, 2015.

웹사이트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2017. 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9629&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2017년 4월 5일 열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 http://konige.kr/sub02_08.php (2017년 3월 2일 열람)
- Blaschke, L.M., “Heutagogy and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heutagogical practice and self-determined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1), 2012, 56-71. Retrieved April 5, 2017 from: <http://www.irrodl.org/index.php/irrodl/article/view/1076/2113>
- National College for Teaching & Learning,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Retrieved April 5, 2017 from <tps://www.nationalcollege.org.uk/transfer/open/advanced-facilitation/advfac-s03/advfac-s03-t3.html>.
- World Economic Forum, “Mastering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nual Meeting Report*, WORLD ECONOMIC FORUM Publishing, 2016, (Retrieved April 5, 2017 from: www.weforum.org)
- World Economic Foru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2016, Retrieved April 5, 2017 from: <https://www.weforum.org>
<https://www.nationalcollege.org.uk/transfer/open/advanced-facilitation/advfac-s03/advfac-s03-t3.html>.

Establishing Neo-Liberal Arts College in Korea :

A Proposal from Edusemiotics

Park, Il-Woo · Ahn, Ho-Young · Bae, Eun-Sook ·
Cho, Hae kyung · Lee, Hyun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prescrip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semiotics*. Recently, edusemiotics has suggested epistemological alternatives beyond traditional philosophical perspectives through the holistic approach that is peculiar to semiotics. On the other h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innovation in education, especially in higher edu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a new educational philosophy is emerging in the process of edusemiotics, that the new education ideology and the curriculum requi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mutually compatible, and suggests the innovation of higher education inevitably requ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ccept the existing achievements of edusemiotics. Secondly, the problems of basic education in Korea are examined by an innovative education ideology, and the present curriculum, and education system are critically reinterpreted.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nd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style liberal arts college(Neo-Liberal Arts College) that adopts a curriculum centered on Neo-Humanities as a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implements educational philosophy of edusemiotics and *heutagogy*, self-determined learning.

Keywords : edusemiotics, liberal education, epistemological turn in philosophy of educ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higher education, liberal Arts College, heutagogy

투고일 : 2017. 05. 12. / 심사일 : 2017. 06. 05. / 게재확정일 : 2017. 06. 12.

